

판소리와 창극

▶ 판소리와 창극을 감상하고 구성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판소리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1인 음악극이다.

현재 본격적인 창작 판소리의 등장으로 이전의 다섯 마당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통 판소리라 구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소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아니리	소리 사이에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
발림	소리하면서 하는 몸짓 또는 표현
추임새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고수나 관객이 하는 감탄사



❖ 판소리 「심청가」에 나오는 대목을 감상해 보자.

▶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엇모리장단

한 곳 당 도 허 니 - 이 는 곳 인 당 수 라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심청의 효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

두 눈을 끄 적 끄 적 끄 적 허 더 니 마 는

눈 을 번 짝 떴 구 나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가 되살아나 황후가 되어 심봉사와 재회하고, 하늘이 감동하여 심봉사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대목으로 이야기 전반의 슬픔을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든다.

창극

창극은 판소리에서 파생되어 여러 명의 소리꾼이 등장인물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공연하는 극음악이다. 고수 1인의 북 반주, 또는 국악 관현악 등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반주한다. 처음에는 판소리 다섯 마당을 중심으로 한 창극이 많이 공연되었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소재의 창극이 만들어지고 있다.



▲ 창극 「춘향」



▲ 창극 「정년이」

❖ 창극 「춘향」과 판소리 「춘향가」의 적성가 대목을 감상하고, 창극과 판소리를 비교해보자.

적성가



	전통 판소리	창극
배역	한 명의 소리꾼이 여러 등장인물을 표현	
반주		소리북과 국악 관현악 중심의 반주
무대 장치	병풍과 돛자리	대규모의 여러 장치가 있는 무대
창법	판소리 창법	

창작 판소리

기존의 사설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사설과 가락을 만들어 부르는 독창적인 판소리를 말한다. 전통 판소리 다섯 마당을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판소리를 창작 판소리라고 한다.

❖ 창작 판소리를 찾아보고 감상해 보자.

예시 김준수 '대취타', 이남치 '범 내려온다'
이자람의 '억척가', '노인과 바다' 등



▲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억척가」